

사순 제 5 주일

기도서 P. 247 A해

제 1독서 (에 제 37, 12b-14절)
제 2독서 (로 마 8, 8-11절)
복 음 (요 한 11, 1-45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감

편집실 : 전주시서노동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05098)

□ 감 론 □



“우리의 소망”

한 기 호 신부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활 중 행하신 기적중 가장 위대한 기적인 죽은자를 부활시키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한 것이라든지, 중풍병자나 하혈하는 부인을 낫게한 것이라든지,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사건등 그외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만, 당신 친히 죽은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기적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자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으로, 장차 맞이하게 될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뿐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부활자체이심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부활자체이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현세의 생활이라 하더라도 실망치 않고 주님께 대한 전적인 희망과 신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또한 신약성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8장 24절)

이 귀중한 선물이요, 우리의 소망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중에 당신을 배척하고 박해하며 십자가에 못박고 조소한 사람들을 위해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 없이 쏟으신채 죽으셨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전적인 비움(Kenosis)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움줄 모르는 이기주의 속에 파묻혀 있는 인간은 그 이기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죽음이 찾아올 때 몹시 실망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죽음은 영원하고 결정적인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이 행하신대로 자신을 비움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는 (爲他指向의 實存)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도와주고 수고해 주고 존경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의 얼굴에, 바로 주님의 얼굴에 합쳐지는 것을 죽어가는 순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죽어가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야 천주교회 주임신부>



사랑(愛德)과 나눔(正義)

사랑과 나눔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요체이며, 이는 둘이 아닌 통합된 하나의 행위입니다.

정의에 입각하지 않은 사랑은 자칫 우리를 교만과 위선 및 우월감으로 만들며 사랑이 없는 정의는 차디찬 인간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정의는 서로를 보완하며, 완성되고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사회현실은 더 더욱 이 사랑과 정의의 동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초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활을 묘사한 성경말씀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사도행전 2, 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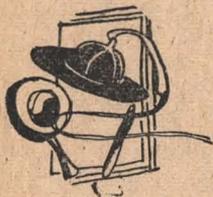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하느님께서 땅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모든 재물은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사목헌장 69, 민족발전 회칙 22)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바”는 단순히 재물이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따뜻한 마음, 노력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이러한 시간, 재능, 마음, 노력 등을 동원하여 봉사하는 것 까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조건없이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쓰도록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여 쓰도록 받은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남과 나누는데에 진정한 신앙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숲 정 이 산 채



아시아 인성회 뉴스레터에서



사랑으로 가진바를 나누자

3월 17일(금)은 단식의 날, 19일(일)은 헌금의 날

1. 사순절 운동, 왜 해야 하나?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가다듬고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난의 골고다를 향하여 감으로 하느님과 화해하며,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행동으로 증거해야 할 기간입니다. 이 화해의 과정이 외적으로 드러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이 기간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구체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조직적이고도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감에 따라 지난 75년 6월 26일 주교회의는 <인성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작년인 77년 최초로 사순절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운동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그동안 각 교구, 본당뿐 아니라 교회기관, 단체들에 새로운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전국 곳곳에서 이웃을 찾고 진정한 그리스도적 사랑의 운동이 펼쳐져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햇동안 서울·안양지역을 휩쓴 집중폭우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비롯하여, 이리참사 및 장성의 참화 속에서 전국의 모든 신자들이 보여준 진정한 형제애의 발로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드러난 신앙의 실천이요 증거였습니다.

-인성회 총재 지학순 주교 말씀 중에서

2. 인성회(仁成會)란?

전주교구 인성회 정관은 그 제3조에서 인성회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회는 모든 국민이 종교·사상·이념에 관계없이, 특별히 버림받은 자와 가난한 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스도적 사랑에 가득찬 정다운 사회로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성회는 긴급재난에 대한 긴급 구호사업, 복지사업, 개발사업을 하며 그 목적하는 바에 대한 의식제발, 역할리고 버림받은 자에 대한 조사사업과 홍보사업을 한다.

3. 77년의 인성회 전국본부 활동은?

77년도의 사순절 성금은 전국적으로 1천6백83만8천7백44원이 모아졌다. 각 교구에서는 성금 가운데서 5%를 전국 본부로 보냈다. 기타수입까지 합쳐 전국 성금이 1백20만1천2백98원 모아진 것이다. 이 성금은 수해의연금(70만원)과 장성탄광 의연금(50만원)으로 1차 전달이 되고, 7월 8일 서울 경기지역을 휩쓴 집중호우로 다수의 수재민이 발생하자 여러 교구와 교황 바오로 6세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1천5백86만2천1백38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그리하여 시흥수해(6백23만6천7백98원), 안양

수해(6백33만6천7백99원), 대전수해(50만원), 옥천수해(50만원), 이리참사(1백만원)에 성금을 보내게 됐다.

전국 전주교구에서는 전국 본부에 2만9천5백원(77년사순절 성금의 5%)을 보내고 이리역 참사로 1백만원을 받은 셈이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상부상조가 바로 이를 이룬 말이리라.

그외에도 전국 인성회에서는 한국에 온 월남 난민들을 제3국에 이주 정착시키기 위하여 외국에 협조를 의뢰하였다. 이 일도 잘되어 90명 난민 중 83명을 미국에 이주 시키기로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얻어 이미 53명을 미국으로 출발시켰다.

4. 전주교구 인성회는?

작년 7월 5일 밤, 무주지방에 수해가 발생한 바 있었다. 교구 인성회는 각 본당과 기관에 그 사정을 호소하여 수재민들을 도왔다. 77년도 사순절 성금 가운데 10만원이 무주에 전달되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리역 폭발참사가 작년 11월 11일 밤에 있었다. 교구 인성회는 즉각 50만원의 성금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리역 참사에 전국 각지의 신자들이 보여준 정성은 컸다. 인성회 사무국과 주교님께, 그리고 창인동 본당에 담지한 성금은 무려 1천3백여만원에 이르렀다.

교구 인성회에서는 국내에서 모아진 성금과 외국에서 보내온 성금을 보다 값지게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리역 참사가 너무나 엄청난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10세대를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이리시변방에 1천6백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13평짜리 간이주막 10동을 건축키로 했다. 이 일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구 가톨릭 약사회의 후원과 성모병원의 지원으로 진료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한 김제본당의 열 에드워드씨가 자동차 정비기술자임에도 어려운 사정으로 생계가 막연한 사실이 알려져 교구 인성회는 지난 2월 12일 정비공구 한 세트(3만여원 상당)를 전달해 그분의 재생을 돕기도 했다.

5.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가진바를 나누는 것이다. 사랑과 나눔은 메에놓고 생각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 각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랑한다면 가진바를 나누어야 한다.

둘아오는 3월 17일(금)에 단식한 몫을 19일 주일에 정성껏 봉헌하는 일이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무릎이 아프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이 일도 중요하다.

□설계·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금주<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직원 채용

1. 자격: 병역 필한 30세 미만의 상고 출신자
2.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반명함판 사진 1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졸업증명서 1통 5. 병역관계 증명서 1통 6. 자격증 사본
3. 마감: 1978. 3. 27. 오후 5시
4. 전형일자: 1978. 3. 29. 오전 10시
5. 제출처: 전주시 동서학동 110-1 전주 성가 신용협동조합 (☎ 7188)

□ 긴급 보고 □



“1천 9백 7천 8백 3십 1일”

거창한 민족적 기념행사가 사방에서 있어야 하는 날이었다, 가라앉은 민족의 양심을 건져올린 1919년 3월 1일의 정신이 새로히 비추어졌어야 했던 날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고등계 형사로 착각할 만큼 정○기관원들이 요시찰 인물들을 감시, 추적, 미행, 납치 감금했던 날이었다. 이렇게 과대망상된 정○기관원에 의해 2월 28일 오전 10시경 김종○ 신부는 M.B.W 관계로 상경하고자 했지만 고속터미널에서, 문○현 신부는 동일 9시경 이리 모모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다 검문소에서 총을 들어대며, 김○신 신부는 동일 오후 2시 반경 진안 한들분당 방문하려다 합동버스 터미널에서 각각 아무 이유없이 연행되어 전주 비○빌 호텔에 감금되었다가 3월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후 2시반경에야 풀려났다.

삼일정신 구원을 위해 서울 동대문 성당에서 기도모임이 있었던 날이다.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무운을 비는 이 모임에 참석코자 하는 성직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연행 및 출업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제지했다. 전○○ 신부는 전주에 나오셨다가 정○원들에게 적발되어 본당으로 강제호송 되었으며, 김봉○ 신부님과 박○○ 신부 등등도 그러했다. 그뿐 아니라 각 본당 신부들에 대한 미행, 감시, 제지가 있었던 날이었다. 문○○ 신부는 우여곡절 끝에 서울행 열차를 탔으나 미행, 감시끝에 서울역에서 마치고 도둑이나 강도처럼 체포 납치되어 정○원에 의해 본당으로 호송되었다.

동대문 성당에서의 기도모임은 기동경○대를 가득 실은 버스가 3대나 동원될 만큼 정부의 주목을 받은 모임이었다. 그러나 서울, 대구, 마산, 안동, 춘천, 전주 등지에서 가까스로 모여온 20여명의 사제와 200여명의 신자들이 숙연한 분위기속에 민족의 장래를 주님께 위탁하는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했다,

1978년 3월 1일은 민족혼에 묶여 있음을 체헛게 한 날이었다.

작년 3월 1일에도 정○기관은 3명 신부를 대공실에 8시간동안 감금하고, 10여명 사제를 강제 연행하여 향연을 베풀어 주며, 강제로 호송하여 제지하더니, 금년에는 전 날부터서 난을 벌렸다. 이렇게 강제로 연금하고 제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텐데 무엇이 아쉬워서 그럴까 권력일까, 재산일까?! 비록 무력 앞에 굴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승복”한것은 아니다. 더욱 사제로써 하느님 말씀에만 “승복”하겠다는 각오는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 언젠가 심판 받아야 할 유한한 인간에게 굴복아닌 승복을 해서 안되겠다. 우리는 힘 앞에 굴복하는 순간이 비굴하지. 압도록하며 오히려 주님께 승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살아야겠다.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전하는 기회가 되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되찾는 기회가 되리라.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뜻있게 보낸다면 3·1정신은 우리에게 길이 길이 살아 있으리라.

요심이 (241)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야교버)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박오르)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원아모집 □

성 체 유 치 원

자 격 : 만 5세-6세 어린이
기 간 : 2월 1일-2월 28일
주 소 :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 화 : ⑤ 8408, ⑤ 3231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대리점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⑤ 5 6 1 4
전주시 금암동 710~11

난 방 시 설 은

한국 온수 온돌

이리 구시장 ☎ 8 6 2 9
전주 최정식 ☎ ② 8 3 4 2
군산 철파시장 ☎ 3 0 3 2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전주 육교열 중앙시장동
(전화 ⑤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사순절을 뜻있게!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한 폐지는 잘 크고 있습니까?

- 3월 17일(금)에 단식지켜 19(일)에 불현합시다.
인성회에서 벌이는 이 운동에 신앙인의 양심으로 기쁘게 참여합시다.
 - J. O. C. 연수회(3월 18일<토>-19일<일>), 가톨릭 센터)
 - 3월 19일은 본 교구장이신 김 재덕 주교님의 주교 성성일입니다.
주교님께 진리와 용기의 정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 교구 연합 판매 안내(값 500원)
「교구공동체의 발전을 다짐」하는 교구연합을 교구청에서 판매중입니다.
수록내용...각 본당, 기관, 교구단위 단체 소개...구역장 명단까지 수록되어 있음
- ※ 이삭회 신자 재교리(매주일 오전 11시 반 가톨릭 센터 3층 345호실)
 ① 교리-바로로 서원 서 레지나 수녀님 지도 ② 음악-생활음악 주창자...이일규 지도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흥복
 보좌 신부 김영배
 사도 회장 이

- J. O. C. 투사 선서식: 12일 공식미사 후
 - 푸리아 윌레회: 12일 오후 2시(강당)
 - 공소 판공성사: 13일~14일
 - 환자 봉성체: 14일(화) 오후 2시
 - 유치원 개원식: 15일(수) 오전 10시
 - 사순절 강연회: 15일(수) 오후 8시(강당)
 - 단식과 금육일: 17일(금)-봉투분배
 - 가정방문: 진북동(15~17일)
 - 부활 판공성사: 별지 참조
 - 축성할 성지가지 지침 바랍니다: 19일 공식미사 (10시 30분) 때
 - 전대학생 모임(전문학교 포함): 12일 12시 강당
- 지난주 불헌금: 124,632원

- 본당 묵상회: 3월 20일부터~22일까지 3일간 저녁미사 후
대상자: 사도회 임원, 반회장, 부녀회원, 폐지오마리에 단원, 성우회원, 외 희망자(강사 초빙)
 - 판공성사 안내: 13일-다가동, 태평동, 중앙동, 14일-진북동, 화산동, 고사동, 15일-완산동, 기타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3월 18일(토)
기도와 협조 바람
 - 성우회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축결혼!
 신랑: 유정대(토마스) 신부: 박숙희(세시리아)
 유기순(부회장) 3남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158,445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록

- 성모회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신우회 윌레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신용조합 윌레회: 18일(토) 저녁미사 후
 - 내일부터 사순절 피정: 13일(월)-17일(금)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강사-범석규 신부님
(피정 동안만 아침미사와 어머니미사 없음)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판공성사 안내...시간 매일 오후 2시~5시 반
밤 9시~19시
인후동-13일과 14일, 남노송동-15일(수)
중노 1가-16일과 17일 어린이 및 중고생-18일(토)
중노 2가-20일과 21일 환자 봉성체-14~15일 오전
- ※ 판공성사는 가능한 낮에 봅시다.
 □ 지난주 불헌금: 57,66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사도회 확대회: 10시미사 후
(반장님까지 전원 참석 바람)
 - 선교주일: 10시미사 후
 - 본당 및 공소 판공일정
3월 14일, 15일-마음리 공소, 15일 오후 -석구리
17일-광곡리, 20일-1반, 6반, 21일-7반, 12반,
22일-13반, 기타반
 - 인성회 위한 단식 금육: 3월 17일
- 지난주 불헌금: 45,22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유제상

- 아동교리 시작: 오늘 2시 교회 2시미사
많은 아동을 보내 주세요
 - 판공일정
직장인 및 학생 11일 저녁 3시~6시, 7시~7시30분
12일 오전 9시~10시, 11시 30~12시 30분 오후 4~6시,
18일 오후 8시~9시, 19일 오전 9시30분~10시
11시30분~12시30분
팔복동, 송천동-20일, 오전 9시~오후 6시 미사
금암동-21일 오전 9시~오후 6시 미사
덕진동-22일 오전 9시~오후 6시 미사
병자성사 23일 접주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72,045원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다음주 성지주일 행사 (성지가지 축성): 공식미사, 오후 미사
 - 판공성사는 지정된 날에 임하여 주십시오
(의무금을 정리합니다)
 - 누구나 유치원 개원식: 무사히 마쳐 감사합니다.
 - 신용조합 업무 범위: 출자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에탁금, 모든 업무는(타 조합과 동일)
주일도 평일과 동일 취급합니다. 많은 애용 바람
 - 요양회 소식: 입회원서를 이달 윌레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미납된 회비 속히 완납 바람)
 - 학생회 소식: 중학생 Call 일요일 오후 3시
고등학교 생 쉼 주일 오후 4시
 - 예비자 교리시간: 화, 수, 목 오전 10시
- 지난주 불헌금: 109,92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반회장 회의: 13일(월) 오후 8시
- 예비신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 목요일 저녁미사 후
- 교리교사 희망자 대환영: 본당 신부님께
- 오늘 일일교장: 임종윤, 마태오 형제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환
 사도 회장 유석중

- 사순절 특별 묵상회(제1차): 토요일 오후 3시-10시
장소: 파티마 성당 회비-500원
등록: 17일까지(사무실)
 - 영세 예정일: 23일(목) 저녁 7시 30분(교리 매일밤)
 - 판공성사: 19일~25일(이전 일반성사 보류)
 - 자모회(10시미사 후), 장우회(저녁미사 후),
성가정회(월요일 오후 2시)
 - 미사시간 변경: 저녁 7시 30분
 - 주임신부님 타 본당 피정지도
 - 보미사단 소집(오늘 오후 1시 30분)
 -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4시
 - 오늘 학생 단합대회: 덕진 왕능
- 지난주 불헌금: 145,820원